



바다 내게로 오라

김경미 글 · 고명근 외 사진 · 김남진 기획 | 눈빛 | 192쪽 | 값 12,000원 |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적인 바다를 테마로 놓고 사진과 글이 만났다. 스물 아홉 명의 사진가와 시인 김경미 씨의 글이 함께 담긴 이 책에서 바다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인간을 맞는다. 한낮의 환한 바다에서부터 꿈꾸는 초록빛 바다, 해 지는 붉은 빛으로 혹은 검정 먹빛으로 인간사만큼 수천 수만의 빛깔과 형상을 갖춘 바다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다. 배병우, 구본창, 김중만 등 내로라하는 국내 작가들의 사진이 인상적이다.

자거라, 네 슬픔아

신경숙 글 · 구본창 사진 | 현대문학 | 250쪽 | 값 10,000원 | 일상의 섬세한 감정의 실오라기들을 날날이 기록한 소설가 신경숙의 산문과 사진가 구본창의 탐미주의적인 사진이 격조 있는 화음을 이뤄냈다. 신경숙의 글은 시종일관 기억을 더듬으며 일상, 주변의 사물, 인물들의 의미를 되찾는다. 한편 이에 화답하는 구본창의 사진들은 하늘거리는 연꽃을 든 손, 광활한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불빛을 밝히며 날아가는 비행기 등을 피사체로 선택해 보는 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박영률출판사 지음 | 박영률출판사 | 226쪽 | 값 9,800원 |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법이 갖는 공동체적 성격, 약속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기획위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도 국민의 합의와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논리, 서사성을 담보하기보단 사람들의 일상을 포착한 장면들이다.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는 시민들,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들, 두런두런 모여 앉아 새참을 먹는 농촌 사람들은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을 선사한다.

뒷모습

미셸 투르니에 지음 · 에두아르 부바 사진 | 김화영 옮김 | 현대문학 | 150쪽 | 값 15,000원 | 누군가의 뒷모습 안에 그의 모든 게 담겨 있다. 프랑스의 최고 지성으로 손꼽히는 철학자 미셸 투르니에와 에두아르 부바의 뒷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이 만나 뒷모습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 앙상한 등에 쟁기를 지고 가는 농부, 대리성상처럼 같은 포즈로 걸어가는 남녀 한 쌍의 뒷모습 등 다양한 뒷모습들을 담은 책이다. 사진도 사진이거니와 시적인 문체로 뒷모습이란 주제 하나로 53장의 그림 한 장 한 장에 화답하는 미셸 투르니에의 글이 무척 아름답다.

청춘, 길

베르나르 포콩 사진 · 앙토냉 포토스키 글 | 백선희 옮김 | 마음산책 | 122쪽 | 값 12,000원 | 51세의 프랑스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콩과 27세의 여행작가 앙토냉 포토스키가 한 배를 탔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세계의 여러 곳을 떠돌면서 각각 찍고, 쓴 사진과 글을 모은 책이다. 이들이 떠돈 곳은 현대 문명이 비껴간 공간들이다. 메마른 들판, 푸른 하늘, 그 사이로 솟아오른 첨탑, 저녁이면 아이들로 북적거리는 골목, 깨진 유리창을 내미는 시골학교, 목동이 있는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내면에 잔잔한 물결이인다. 포콩의 사진은 영화처럼 긴 여운을 남겨주고, 포토스키의 글은 청년다운 뜨거움을 담보하고 있다.

**The Blue day book
더 블루 데이 북**

브래들리 트리버 그리브 지음 | 신현림 옮김 | 바다출판사 | 192쪽 | 값 6,800원 | 제목 그대로 우울한 날에 펼쳐보면 좋을 책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 웃는 여유도 잃지 말구요"라고 속삭이는 주인공은 동물들이다. 이 책은 우울과 관련된 짙막한 글 곁에 호소력 있는 표정의 동물사진을 담고 있다. 짙막한 한 줄의 글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생명체들의 소리처럼 느껴진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우울함을 더 많이 느끼는 우리들에게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극복할 방법을 전한다.

M.I.L.K 시리즈

family, friendship, love

정현종 옮김 | 이레 | 각권 200쪽 내외 | 각권 값 15,000원 | Moments of Intimacy, Laughter, and Kinship-친밀감과 웃음, 가족애의 순간들 프로젝트의 수상작들을 담은 책이다. 전 세계 164개국 1만7,00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출품한 4만여 장 중에서 선별한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랑, 우정, 가족애의 순간들로 이루어진 시리즈 속 사진들은 보는 이를 울고, 웃고, 감동하게 만든다. 친구손을 꼭 짊은 꼬마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임종을 앞둔 노인의 주름 가득한 얼굴까지 피사체가 된 주인공들은 우정과 사랑, 가족애의 순간들을 흥미롭게 전한다. 이미지 곁에 놓인 잠언들은 시인 정현종 씨의 맛깔스런 번역으로 소개됐다.